

현장과 이론을 포괄하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기대합니다

Looking forward to Various Academic Activities Covering the Field and Theories

정연심(홍익대학교 예술학과)
Chung Yeonshim
(Art History and Theory,
Hongik University)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학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회와 저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분야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20-30년이 되어 간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디자인사를 중심으로 한 학회와 저널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안병학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시작한 '한국디자인사학회' 창립은 국내 디자인사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주축을 형성하리라 생각한다.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디자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공예와 디자인을 표방한 미술관들이 물질문화 연구, 디자인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미술사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다양한 방법론과 케이스 스터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는 디자인의 역사가 미술사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더욱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이러한 학문 연구에 다양한 기여와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립되었다고 보므로, 앞으로 국내 디자인 이론 연구뿐 아니라, 디자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미술사적 언어로 체계화하고 또 담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술 오브제는 특정 계층, 특정 계급, 특정 컬렉터들의

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디자인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서 다가가기 쉬운 연구로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도 따지고 보면 미술보다는 디자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전통 공예 연구 등은 다수 있지만, 디자인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서구의 방법론이나 이론적 틀을 논하는 이론서도 많지 않은 편이다. 특정 디자이너에 대한 작가론 연구나, 여성 디자이너 발굴,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디자인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반박하는 수정주의적 시각 등 담론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일시 중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 연구자들이 국내외 연구자들과 (온라인) 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토론에 박차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05년 박사 논문 통과 이후,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와 함께 디자인사에 대한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다. 디자인사는 미술사와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 수업으로 이를 가르치는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할만한 수업이었다. 무엇보다 교재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여러 교재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참신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지만,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이번 국내 학회의 결성으로 타 분야와도 협업하면서 디자인의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논문들을 묶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저서'의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도 다양한 교재에 대한 선택권을 줄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디자인 연구자들에게는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고, 아울러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학문은 갇힌 것이 아니라 학회의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서 디자인사 연구뿐 아니라 디자인을 둘러싼 융합연구,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해야 할 중요한 미션을 담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도 의미 있게 시작한 '한국디자인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학회로 우뚝 서고 글로벌 맥락에서 디자인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 44